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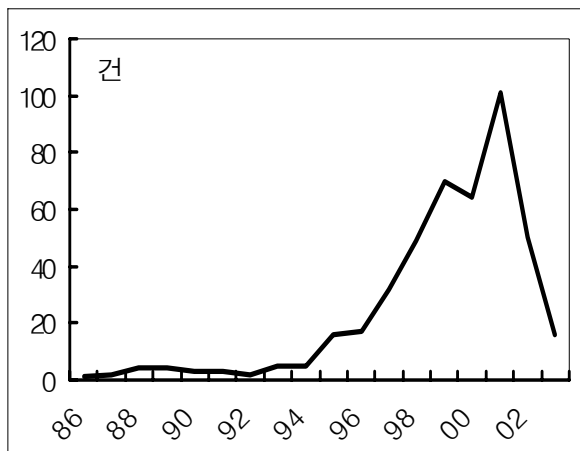
천연식물 화장품이 주름 잡는다!

특허청, 1999년 이후 피부개선 기능에 초점 ... 민간요법까지 동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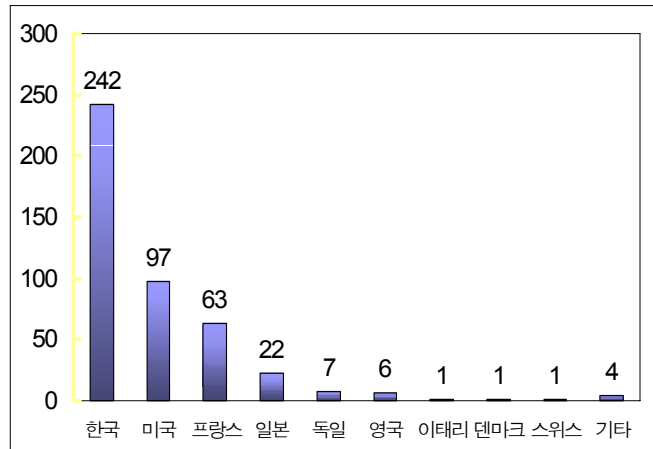
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갈구하는 여성들의 욕구에 발맞춰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기능이 강화된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다.

특허청에 따르면, 국내 주름개선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은 1994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해 1999-2003년 최근 5년 동안의 출원이 전체 출원의 68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 1994-1998년과 비교하면 2.5배 증가한 셈이다.

주름개선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 추이



주름개선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국 비교



특허기술 가운데에는 국내출원이 54%로 제일 많고 이어 미국 22%, 프랑스 14%, 일본 5%의 순으로 집계됐으며,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55%와 45%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

주름개선 화장품의 활성 성분으로는 신규 화합물과 관련된 출원이 44%, 천연식물 추출물이 34%, 레티노이드 8%, 비타민 C 4% 등으로 파악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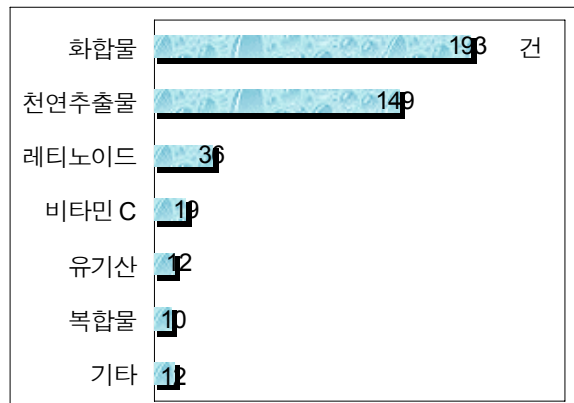
신규 화합물은 주로 디벤조일메탄 또는 벤조트리아졸 유도체 등 자외선 차단을 통해 피부의 주름을 막아주는 성분이 대부분이며, 천연식물 추출물로는 인삼, 목단피, 녹차, 빈랑자 및 초두구 추출물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.

특히, 최근 천연식물 추출물에 국내 화장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, 식물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국내 민간요법 또는 전통의학에 기반을 둔 원료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출원된 기술 중 주름개선 메커니즘에 따라서는 콜라겐 합성 증진을 통한 주름개선이 32%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, 피부 영양공급 18%, 자외선 차단 17%, 항산화 7%, 보습제 6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2003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6만2000억원으로 추정되며, 이 가운데 주름개선 화장품의 시장은 13% 가량인 약 8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주름개선 화장품 관련특허의 활성성분 비교



<Chemical Journal 2003/12/24>